

한전, 128명 징계에도...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임직원 올해 31명 추가 적발... '원 스크라이프 아웃제' 도입에도 위반
한전, 공기업 징계 처분 81건...32개 공기업 중 25.5%로 가장 많아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직원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됐음에도, 올해 또다시 태양광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했다가 적발되면서 직원들의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전 임직원들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해 적발된 사례는 31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말 감사원과 자체 조사를 통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128명을 적발, 해임 및 징직 등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태양광 사업 등 겸직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직원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도, 해고하겠다는 '원 스크라이프 아웃제'를 전면 도입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도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임직원 중에는 지난해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태양광 사업을 몰래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데는 한전의 미온적인 대처,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적발횟수는 지난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등 매년 발생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까지 적발된 58건 중 51건은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징계를 받았고, '감봉'도 6건에 그쳤다. '해임'은 전무했고, '징직' 등 중징계는 1건에 불과했다.

지난14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 현장공감에서도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등 겸직 규정 위반 사항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 정) 의원은 "태양광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해당 사업에 직간접적 지속 관여 사례도 속출하는 것은 한전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2개 공기업의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징계 처분 건 수는 317건, 이 중 한전이 81건으로 전체 공기업 징계 건 수의 25.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위를 저지른 한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강화 및 직업의식 제고 등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박 의원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라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표"라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나서 강력한 공공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인도 최대 빛의 축제서 K푸드 알렸다

'K-푸드 유니버스' 운영
쿠킹클래스·온라인 상담도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인도의 최대 축제인 '빛의 축제, 디왈리'에 맞춰 다양한 K-푸드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복합 팝업 스토어 'K-푸드 유니버스'를 운영한다. <사진> 올해 처음 추진하는 'K-푸드 유니버스'는 행사 기간 중 뉴델리 남부의 현지 고소득층 거주지 사켓 지역인 DLF 아외광장에서 운영되며, K-푸드 판매, 홍보를 비롯해 수출상품 현지 시장 테스트, 기업 간 상담을 뜻하는 'B2B' 상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국내 핫 플레이스를 콘셉트로 ▲남대문 마켓 ▲한강 피크

닉존 ▲홍대존 ▲성수 스트리트 ▲나주 스테이션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불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나주 스테이션에서는 체험행사 외에도 현장 방문 바이어들이 직접 참여하는 쿠킹클래스와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한강 피크닉존에서는 'K-드라마' 열풍으로 해외에 널리 알려진 '한강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과자, 음료 등 40여개의 수출상품의 마켓 테스트 체험과 현장 판매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인도 시장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권오영 aT 수출식품이사는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저력을 기반으로 소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K-푸드의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펼쳐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SG 확산 나선 한전KDN... '제 1회 ESG Week' 개최

전기차충전소 개소식도

한전KDN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일원에서 '제 1회 한전KDN ESG Week'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전KDN이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전략 12개 전략과제에 따라 분야별로 나눠 시행하던 개별 행사를 통합, 개최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ESG 의식 제고와 환경경쟁력,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활동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ESG 내재화에 근거한 모범적 ESG경영 문화 조성에 집중했다.

행사는 ▲리사이클링 약기공연 ▲ESG 전문가 특강 ▲생태보존 에코플로깅 ▲전통시장 탄소줄미팅 ▲ESG EAT(잇)데이 ▲다문화가정 응원상자 만들기 ▲ESG경영 실천서약 등 실천 프로그램과 강연 등으로 진행했다.

더불어 친환경 솔루션을 접목한 전기차충전소인 '한전KDN CHA-ON 슈퍼스테이션' 개소식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소재 사회적경제



지난 22일 한전KDN 직원들이 ESG Week 기간 중 '구내식당 전탄 Zero'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기업 7개소와 협업해 1012명의 체험객을 모집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ESG의 실천을 위해 임직원 모두의 자발

적인 참여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디지털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ESG 적극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켄텍, 한-독 국제 수소 컨퍼런스 개최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과 협력 강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할레에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안할트공대 및 H2Korea와 함께 '2024 한-독 국제 수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과 독일의 주요 산업 및 에너지 연구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국제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수소 경제 구현 및 기술 개발'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수소 경제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수소

생산 ▲수소 저장 및 응용 ▲수소 활용 ▲수소 안전성 ▲시장 전망 ▲R&D 협력 활동 ▲산업·연구 개발 분야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한국과 독일 양국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다"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켄텍 수소에너지 연구소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실질적 수소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건설현장 위기대응 훈련

유관기관과 통합 대처 능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8일 강진군 하저항 '어촌뉴딜 300' 사업 건축리모델링 현장에서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건설 현장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시공현장 안전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11가지 위기 형태 중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긴급 구조, 사고 신고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 대처 능력을 점검했다.

위기 상황은 붕괴사고(사면·구조물·제방·터널), 안전사고(추락·매몰·화재), 기타(환경·가뭄·소음·발파) 등으로 구분했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재난상황 시 신속한 수습과 대응을 위해 실천과 같은 현장훈련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훈련으로 안전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